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관련 학술연구 동향 및 내용 분석*

장영은[†]·성미영[‡]·장문수[§]·김성석^{**}·임아름^{***}

중앙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서경대학교·서경대학교·중앙대학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부모의 영향을 받아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음운 인식능력이 낮고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능력이 낮은 등의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학계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관심을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있는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를 주제로 한 113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연구유형, 그리고 연구방법을 축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해당기간 연구의 편수는 증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둘째, 대다수의 연구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급격한 발달시기를 경험하는 영아기에 대한 언어발달 연구는 부족하여 영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유아 관련 연구가 양적연구 위주로 실시되었는데, 다문화 유아 언어발달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더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술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와 관련된 정책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정책연구의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언어발달 현황을 파악하고 언어발달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다문화 유아 언어, 다문화 아동 언어, 다문화 학술연구 동향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038).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교신저자,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 서경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

** 서경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세계의 지구촌화와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순수혈통의 단일민족을 형성해오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및 결혼 이주 여성의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에 대한 연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의 자녀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국제결혼이민자는 10년 전인 2007년도에 비해 13.7% 증가하였고, 2017년 한 해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18,440명으로, 2008년 13,443명에 비해 증가하였고, 전체 출생아에서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8년 2.9%에서 2017년 5.2%로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17).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2019년 현재 103,881명으로 전년(93,027명)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16,785명이었던 것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국적인 학령 인구 감소에 비해 최근 5년 간 그 수가 꾸준히 10%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9; 통계청, 2018).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증가하고, 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역시 증가함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 중 한 명의 부모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자녀에게 양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의 자녀들과는 다른 환경을 경험하며, 특히 유아기 자녀의 언어 습득 및 발달 과정에서는 개별 특성뿐 아니라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문화가정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녀양육, 특히 자녀의 한국어교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자녀양육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음운인식능력이 낮고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능력 모두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방소영·황혜정, 2011; 오성배, 2005; 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 2009; 정은희, 2004; 채혜경, 2008)를 통해 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가족건강진흥원(2016)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집단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원활한 언어전달 및 이해능력이 부

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학습부진이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이들의 한국어능력을 일반가정 아동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충분한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지,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및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결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기존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및 내용 고찰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마련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프로그램 위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한국어 교육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진행된 동향분석은 몇몇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은 2010년 처음 실시되었으며(권희연·이미숙·전병운, 2010), 그 이후 2018년까지 간간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관련 연구 동향이 분석된 바 있다. 최근까지 실시된 다문화 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대상을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아동으로 광범위하게 선정하여, 언어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라 할 수 있는 유아기에 대한 연구동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에서 있어서도 백분율 및 빈도를 보고하는 것이 그쳤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유아의 언어발달을 다룬 연구를 선정하고, 연구유형 그리고 연구방법을 축으로 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방법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2010년을 기점으로 최근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다문화 유아 언어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의 연대별 시기 구분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도 가장 최근의 연대인 2010년대에 초점을 두어 2010년~2018년까지 시기를 분석대상 시기로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발달의 중요성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언어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특히 한국어 습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연 또는 지체, 심한 경우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성배는(2005)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가 초래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3~5세 유아 중 68%가 언어발달 지체의 가능성을 보였으며(정은희, 2004), 3~6세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발달 지체가 더 크게 나타났다(채혜경, 2008). 유아기의 언어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휘력의 습득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현경 외, 2009). 다문화 가정의 유아의 경우 수용어휘보다는 표현어휘에서 발달적 어려움이 더 빈번히 나타났다(방소영·황혜정, 2011). 해외 연구에서도 이민가정의 만 2세 유아의 표현어휘력은 단일어 사용 가정의 유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Hoff, et al., 2014).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문제가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여부도 연구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왔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초기에는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언어발달이 다소 느리고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후에는 또래수준의 능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동시에(황혜신·황혜정, 2000),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하여도 언어발달의 차이를 여전히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어(황상심, 2009), 언어발달의 간극이 발달적 과정을 통해 회복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아가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환경이 초기의 언어발달 지연의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문화가정 3세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에서 학습지 활동을 경험하여 직접적인 한국어 자극에 노출되면 5세가 되어 일반가정 유아와의 표현어휘 차이가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성미영 외, 2010), 여전히 한국어발달에 어려움을 보인다. 해외 연구에서도 이민자 어머니의 자녀가 일반 아동에 비해 언어유창성이 낮았지만, 이민자 자녀이더라도 일정의 보육이나 교육을 받은 경우 언어유창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Magnuson, Lahaie and Waldfogel, 2006).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문제는 이후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으로의 전이 시에 원활한 적응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김명화·정길순·노진화, 2012), 이 경우 초등학교 입학에 앞서 학령전기에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어휘력의 부족은 학교준비도에 부정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agnuson, et al., 2006).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고 서투름과 동시에 학교 수업시간에 필요한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낮으며(안원석, 2007), 기초 학습능력인 연산, 셈하기, 읽기, 쓰기 등도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오성배, 2007).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업성취는 전반적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업성취의 차이는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아동의 학업성취의 차이보다 현저했고, 지능을 통제하여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업수행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혜령, 2008). Tamis-LeMonda와 동료들(2014)에 따르면, 이민가정의 유아의 표현어휘능력은 이후 인지발달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읽기, 어휘, 수학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처럼 유아기의 언어발달이 이후 학습능력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적응 등 사회정서적 영역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다문화가정의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히 유아기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논문의 동향을 살펴,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온 주제를 파악하고, 연구의 내용에서 다루어진 주된 개념을 도출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사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또는 언어문제와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의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연구동향 분석연구로는 권희연 등(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4년 시작되었으며, 분석대상이 된 32편의 연구에서 유아와 아동의 음운, 어휘발달 및 형태론을 분석한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의 한국거주 기간과 어머니 언어능력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기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이 일반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에 비해 뒤처진다고 밝혔으며, 관련 요인을 주로 가정 내 어머니 특성에서 탐색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종합하면, 2010년 이전 연

구들은 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어발달의 영역별 능력을 진단했으며, 가족 내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진행된 정은희 등(2012)의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발달의 진단과 평가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을 즈음하여 취학 전 유아의 어휘능력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연구결과들이 대부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지체를 보고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언어발달 진단과 평가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가 다문화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참조검사를 사용하는 문제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진단도구의 한계로 불필요하게 언어지체로 구분되거나 적절한 개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박혜성(2013)은 언어장애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및 이중언어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고찰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언어발달 중 병리적 특성과 그 개입 및 치료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점차 그 수가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일반 보육현장과 학교 제도 교육, 그리고 가정 내에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다소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이승숙과 권경숙(2018)이 다문화자녀의 이중언어를 주제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바 있으나,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에 관한 2010년대의 최근 논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상의 동향 연구들은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 간 언어발달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연구 결과에 따르면, 몇몇 예외적인 연구결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언어발달에서 지체 또는 문제를 밝혔다. 특수교육 영역에서 언어장애 진단 및 개입에 관한 연구들의 동향을 살핀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를 병리적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한국어교육의 기초자료로는 한계를 가진다. 방법론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연구의 동향 분석은 연구결과와 대상을 중심으로 빈도 분석 및 내용 분석을 해왔으며, 시기적으로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된 다문화가정 자녀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살피고자 하며,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큰 범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비중과 방법, 그리고 연구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요어(keywords) 출현 빈도를 분석하는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워드클라우드 기법은 텍스트를 분석하여 빈번히 사용되는 주요어가 보다 명확하게 눈에 띄도록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채택되고 있다(Heimerl, Lohmann, Lange, & Ertl, 2014).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을 다룬 연구자들의 관심주제와 연구진행의 전반적 추이를 밝히기 위해 텍스트 시각화 기법인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탐색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2010년부터 진행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들의 연도별, 대상별 동향은 어떠한가?
2. 2010년부터 진행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들의 연구방법의 동향은 어떠한가?
3. 2010년부터 진행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들의 연구유형의 동향은 어떠한가?
4. 2010년부터 진행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들의 주제어의 경향은 어떠한가?
5. 2010년부터 진행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연구의 내용과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 관련 논문 113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논문에는 국내 학술지와 학술대회 발표자료, 전문잡지 등에 수록된 논문들이 포함되며, 석·박사 학위논문은 제외하였고, 포스터 발표논문과 키워드가 기재되지 않은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당기간동안 발표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정보(KISS)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의 2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검색을 진행하였다. 검색 키워드(keyword)는 ‘다문화 유아 언어’, ‘다문화 영아 언어’, ‘다문화 영유아 언어’, ‘다문화 아동 언어’, ‘결혼이민 유아 언어’, ‘결혼이민 영아

언어’, ‘결혼이민 영유아 언어’로 설정하였다. 이 때 키워드 및 제목에 특정 대상이 표기되어 있으나 분석 내용이 키워드 및 제목에 표기된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영유아 언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나, 세부 내용이 유아를 위주로 작성되었을 경우는 대상을 유아로 분류하였다.

2.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 관련 국내 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구유형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Best와 Kahn(2006)의 연구유형 분류기준을 참고하고, 정희영·방승미·유희진(2012)와 성미영·정현심·이서경(2018)의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여 기초연구, 실천연구, 기타로 구성하였다. 연구유형에 따른 연구주제는 <표 1>과 같다. 정희영 등(2012)에 따르면, 연구유형 분류에서 기초연구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관련 이론 또는 철학적 배경을 담은 연구나, 관련 주제 관한 인식 및 실태, 현황조사를 포함한다. 실천연구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핀 연구와 해당 주제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에 더하여 연구동향 분석 및 내용 분석을 실시한 연구를 기타 연구로 분류한 성미영 등(2018)의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연구유형을 기초연구, 실천연구,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 동향에 대한 분석은 성미영 외(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분석기준을 구성하였다. 각 분석기준의 하위구분 및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동향의 분석기준 구분 및 세부내용

분석기준	하위구분	세부내용
연구시기	연도	연구발표 연도(2010~2018)
연구유형	기초연구	인식 및 실태, 현황 분석
	실천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효과, 다문화 아동 언어 관련 변인, 언어 관련 평가
	기타	연구동향 분석, 내용 분석 등
연구방법	문헌연구	문헌연구
	양적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
	질적연구	문화 기술적 연구, 사례 연구, 심층면접 및 관찰
	혼합연구	문헌/양적연구, 문헌/질적연구, 양적/질적연구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 분석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 관련 총 113편의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 관련 논문의 내용 분석을 위한 것으로 주제어 경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에 해당하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Tagxedo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 113편을 대상으로 해당기간의 연구 주제와 방법, 연구내용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서는 연도별 및 대상별 현황, 연구방법, 연구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제어 경향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뒤이어 제시하였다.

1. 연도별 및 대상별 현황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와 관련된 연구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18편(15.9%)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10편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연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 대상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47(4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0편(26.5%)이었다. 반면 다문화 영아 언어와 관련된 연구는 분석 기간 중 1편(0.9%)에 불과하였다(〈표 2〉 참조).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유아의 언어발달을 연구함에 있어 영아기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국내연구는 종단적인 접근을 한 연구가 드물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발달적으로 지속되는가에 관한 종단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 연구대상별 현황 분석

(단위: 편, %)

연도	영아	유아	초등	가족	강사	기타	전체
2010	1 (0.9)	13 (11.5)	2 (1.8)	1 (0.9)	0 (0.0)	1 (0.9)	18 (15.9)
2011	0 (0.0)	7 (6.2)	1 (0.9)	1 (0.9)	0 (0.0)	3 (2.7)	12 (10.6)
2012	0 (0.0)	6 (5.3)	5 (4.4)	0 (0.0)	1 (0.9)	2 (1.8)	14 (12.4)
2013	0 (0.0)	7 (6.2)	0 (0.0)	1 (0.9)	0 (0.0)	3 (2.7)	11 (9.7)
2014	0 (0.0)	3 (2.7)	4 (3.5)	0 (0.0)	3 (2.7)	2 (1.8)	12 (10.6)
2015	0 (0.0)	2 (1.8)	9 (8.0)	1 (0.9)	1 (0.9)	3 (2.7)	16 (14.2)
2016	0 (0.0)	5 (4.4)	6 (5.3)	0 (0.0)	3 (2.7)	2 (1.8)	16 (14.2)
2017	0 (0.0)	2 (1.8)	1 (0.9)	1 (0.9)	1 (0.9)	0 (0.0)	5 (4.4)
2018	0 (0.0)	2 (1.8)	2 (1.8)	3 (2.7)	0 (0.0)	2 (1.8)	9 (8.0)
전체	1 (0.9)	47 (41.6)	30 (26.5)	8 (7.1)	9 (8.0)	18 (15.9)	113 (100.0)

2. 연구방법 동향 분석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관련 연구들의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양적연구 66편(58.4%), 문헌연구 20편(17.7%), 질적연구 20편(17.7%), 혼합연구 7편(6.2%)로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양적 연구 중에서도 조사연구가 47편(41.6%)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연구가 발표되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대다수가 심층면접이나 관찰에 의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연구는 가장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113편의 논문 중 7편(6.2%)만이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거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사용하는 등의 혼합연구로 진행되었다.

〈표 3〉 연구방법별 동향 분석

(단위: 편, %)

연도	문헌 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 연구	전체
		실험 연구	조사 연구	사례 연구	심층 면접 및 관찰		
2010	1 (0.9)	5 (4.4)	10 (8.8)	0 (0.0)	1 (0.9)	1 (0.9)	18 (15.9)
2011	2 (1.8)	6 (5.3)	2 (1.8)	0 (0.0)	2 (1.8)	0 (0.0)	12 (10.6)
2012	2 (1.8)	1 (0.9)	6 (5.3)	0 (0.0)	3 (2.7)	2 (1.8)	14 (12.4)
2013	3 (2.7)	0 (0.0)	5 (4.4)	0 (0.0)	2 (1.8)	1 (0.9)	11 (9.7)
2014	2 (1.8)	1 (0.9)	6 (5.3)	1 (0.9)	1 (0.9)	1 (0.9)	12 (10.6)
2015	5 (4.4)	1 (0.9)	6 (5.3)	1 (0.9)	3 (2.7)	0 (0.0)	16 (14.2)
2016	3 (2.7)	2 (1.8)	7 (6.2)	0 (0.0)	3 (2.7)	1 (0.9)	16 (14.2)
2017	0 (0.0)	2 (1.8)	2 (1.8)	0 (0.0)	1 (0.9)	0 (0.0)	5 (4.4)
2018	2 (1.8)	1 (0.9)	3 (2.7)	0 (0.0)	2 (1.8)	1 (0.9)	9 (8.0)
전체	20 (17.7)	19 (16.8)	47 (41.6)	2 (1.8)	18 (15.9)	7 (6.2)	113 (100.0)

3. 연구유형 동향 분석

113편의 분석대상 논문을 연구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기초연구가 57편(50.4%), 실천연구가 49편(43.3%), 기타 연구가 8편(7.1%)으로 나타나 기초연구가 절반 이상이였다. 이를 연구주제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식 및 실태, 현황에 대한 연구가 57편(50.4%)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언어발달 현황 및 실태(정예리·이숙희, 2010; 이은경·김희수, 2011; 이승숙·곽승주, 2013; 박순길·조증열·박선희, 2014; 김수진,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 및 구사 특성(오소정·김영태, 2014; 최진숙·김효정·장현진, 2016; 고선희, 2017; 최진숙·고은, 2017) 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빈번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천연구를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언어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17편(15.0%),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 발달 등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가 17편(15.0%), 프로그

램 개발 관련 연구는 15편(13.3%)이 실시되었다. 한편, 연구동향이나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8편(7.1%)에 그쳐 이와 관련된 연구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유형별 동향 분석

(단위: 편, %)

연도	기초연구	실천연구			기타	전체
	실태 및 현황분석	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효과	관련 변인	연구동향 및 내용 분석	
2010	10 (8.8)	0 (0.0)	4 (3.5)	2 (1.8)	2 (1.8)	18 (15.9)
2011	5 (4.4)	3 (2.7)	3 (2.7)	1 (0.9)	0 (0.0)	12 (10.6)
2012	7 (6.2)	1 (0.9)	2 (1.8)	2 (1.8)	2 (1.8)	14 (12.4)
2013	5 (4.4)	3 (2.7)	0 (0.0)	2 (1.8)	1 (0.9)	11 (9.7)
2014	4 (3.5)	2 (1.8)	2 (1.8)	4 (3.5)	0 (0.0)	12 (10.6)
2015	9 (8.0)	3 (2.7)	2 (1.8)	1 (0.9)	1 (0.9)	16 (14.2)
2016	10 (8.8)	2 (1.8)	1 (0.9)	3 (2.7)	1 (0.9)	16 (14.2)
2017	3 (2.7)	0 (0.0)	1 (0.9)	1 (0.9)	0 (0.0)	5 (4.4)
2018	4 (3.5)	1 (0.9)	2 (1.8)	1 (0.9)	1 (0.9)	9 (8.0)
전체	57 (50.4)	15 (13.3)	17 (15.0)	17 (15.0)	8 (7.1)	113 (100.0)

4. 주제어 경향 분석 결과

앞선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관련 연구주제 동향과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13편의 논문들에 등장한 주제어를 분석하여 주제어 경향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분석에서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유아’, ‘다문화가족 영아’ 등의 키워드는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다문화 언어 관련 연구에서 높은 등장빈도를 보인 주제어는 ‘이중언어(12회)’, ‘언어발달(11회)’, ‘언어능력(10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이중 언어에 노출되어 있다는 환경적 특성(곽금주, 2008; 송채수, 2018)과 앞서 연구유형과 연구주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리·이숙희(2010)의 연구 그리고 박순길 외(2014)의 연구 등에서는 특정한 지역의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실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일반가정의 아동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언어발달 및 현황을 비교한 연구(구효진·최진선, 2012; 김의수·김혜림, 2012; 박미단·성순옥·김영희, 2013; 양송희·박성지, 2016)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언어교육에 특정 학습 형태 및 도구를 접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습 형태로는 연극(안미영, 2012; 나은주·나은영, 2015), 춤(이정화, 2015) 등이 있었고, 학습 도구로는 그림책(박나리, 2013; 황보영, 2016)이 있었다. 또한 특정 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교재개발(김유미, 2011),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유희재·최윤영·카제노바 아셀·강승혜, 2016) 등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된 연구로 크게 언어발달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강희양·김태호, 2011; 박현선·이채원·김민정, 2014, 정경희·황상심·배소영·김미배, 2015)와 특정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민화·남명자·고태순·정지나, 2010; 선애순·권순황, 2010; 채영란·지성애, 2010; 방소영·황혜정, 2011; 이경미·정규진·최애나, 2011; 양진희, 2012; 김세민·유강수, 2015)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으로는 카메라 프로젝트(양진희, 2012), 음악 및 미술활동(채영란·지성애, 2010; 이경미 외, 2011; 김가현·장석환, 2017), 동화책(김민화 외, 2010; 선애순·권순황, 2010), 로봇활동 수업(김세민·유강수, 2015) 등이 있었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김안나·권민균, 2010; 정민자·윤선아, 2014; 오성숙, 2010)에 대한 연구로 특히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도 어머니와 관련된 연구(오성숙, 2013; 오지훈·김현수, 2017)가 진행되었다. 또한 언어발달과 관련된 변인(이정아·이지현, 2011; 김갑순·김태인, 2012; 김정은·김영태·오소정, 2014)에 대한 연구와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박화윤·조진희, 2012) 연구도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관련 연구동향, 내용 등을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실태(권희연·이미숙·전병운, 2010; 정은희·김태강·박윤, 2012; 박혜성, 2013; 엄진명·이필상, 2016; 이승숙·권경숙, 2018)에 관한 연구였다. 이 밖에도 다문화 아동 학습교재를 분석한 연구(류선숙, 2015)와 다문화 가정 언어교육지원 체계를

분석한 연구(고은, 2010) 등이 수행되었다.

〈표 5〉 연구내용 동향 분석 결과

구분	내용	대표연구
실태 및 현황 연구	· 언어발달 및 언어 습득 양상	김지숙(2010), 배소영·김미배(2010), 이은경·김희수(2011), 권경숙(2010), 최진숙(2016), 최진숙·고은(2017)
	· 다문화 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	심고우니·정경희(2012), 유재연(2013), 김수진(2015), 박세희·황보명(2015), 배희숙(2015), 황상심·강복정(2016)
	·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정환경 관련 연구	성미영 외(2010), 이은경·오성숙(2012)
	· 다문화 아동과 부모의 언어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유향선 외(2011), 오소정(2015), 박영옥·이진경(2018)
	· 특정 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실태에 관한 연구	이상희 외(2010), 정예리·이숙희(2010), 박순길 외(2014)
	· 일반가정의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비교 연구	구효진·최진선(2012), 김의수·김혜림(2012), 박미단 외(2013), 양승희·박성희(2016)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	· 언어교육에 특정 학습 형태 및 도구를 접목하는 연구	안미영(2012), 나은주·나은영(2015), 이정화(2015), 박나리(2013), 황보영(2016)
	· 특정 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교재개발	김유미(2011)
	·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연구	유희재 외(2016)
언어 교육 및 프로그램 효과 연구	· 언어발달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	강희양·김태호(2011), 박현선 외(2014), 정경희 외(2015)
	· 특정 프로그램(카메라 프로젝트, 음악 및 미술활동, 동화책, 로봇활동 수업 등)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민화 외(2010), 선애순·권순황(2010), 채영란·지성애(2010), 방소영·황혜정(2011), 이경미 외(2011), 양진희(2012), 김세민·유강수(2015)
언어 관련 변인 연구	·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정환경(특히 어머니) 변인	김안나·권민균(2010), 정민자·윤선아(2014), 오성숙(2010), 오지훈·김현수(2017)
	· 언어발달과 관련된 변인	이정아·이지현(2011), 김갑순·김태인(2012), 김정은 외(2014)
	·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연구	박화윤·조진희(2012)
연구동향 및 내용 분석	·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실태에 관한 연구	권희연 외(2010), 정은희 외(2012), 박혜성(2013), 엄진명·이필상(2016), 이승숙·권경숙(2018)
	· 다문화 아동 학습교재 분석 연구	류선숙(2015)
	· 다문화가정 언어교육지원 체계 분석 연구	고은(201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와 관련한 국내 학술지 113편

을 대상으로 이들 연구가 어떤 주제를 포함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와 관련한 연구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해당기간 동안 연구의 편수에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언어와 관련된 각종 부적응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은 실정에서 관련 연구가 감소하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연구 분야에서 프로그램개발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학령전기 자녀를 가진 다문화 가정의 욕구에 맞는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에 대한 것으로 대다수의 연구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령전기인 유아기는 언어관련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박세희·황보명, 2015). 따라서 언어 폭발기인 유아기와 초등학생 시기의 언어발달 연구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애 발달과정에 있어 영역별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영아기에 대한 언어발달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영아기의 경우 이 시기 경험이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영아의 언어 발달에 대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다수의 연구는 양적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유형으로는 실태 및 현황분석이 많았다.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와 관련한 실태나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 등을 변인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며 이들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적 분석 등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례연구나 생애사 연구 등의 질적 연구를 더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태나 현황은 한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다문화 아동 언어의 변화 추이 등에 대한 내용은 살펴 볼 수 없기 때문에 종단적인 연구로 확대하여 이들의 언어 발달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와 관련된 학술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와 관련된 정책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은 교육과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므로 다문화가정 언어와 관련된 정책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9년 간 국내에 발표되었던 학술지 논문 113편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와 관련한 학술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언어발달 현황을 파악하고 언어발달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먼저 연구대상의 한계로 키워드를 기재하지 않은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등의 일부가 분석 자료에서 제외되었는데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와 관련한 연구의 경향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분석 자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연구의 한계는 분석방법의 한계로 본 연구는 주제어의 빈도만 분석하여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각 연구주제별로 어떠한 연관성을 있는지, 또한 이들 연구들은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내용 파악이 부족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와 관련하여 학술연구들의 경향성 및 연관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희양·김태호. (2011). 언어발달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 인지발달 및 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2): 523-537.
- 고선희. (2017). 학령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야기 글쓰기 특성. 「언어치료연구」, 26(3): 1-11.
- 고은.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제안. 「교육이론과 실천」, 15(2): 1-24.
- 교육부. (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 구효진·최진선. (2012).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4): 115-136.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 권경숙. (2015). 다문화가정 영아의 이중 언어 습득 과정 탐색.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107-134.
- 권희연·이미숙·전병운.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문헌 분석. 「지체 중복건강장애연구」, 53(4): 283-306.
- 김가현·장석환. (2017).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0(1): 29-48.
- 김갑순·김태인. (2012). 그림책 중심의 언어활동을 통한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적 변화 탐색-포래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0(1): 95-120.
- 김민화·남명자·고태순·정지나. (2010).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아동의 언어, 사회성, 자아개념 발달과 가정환경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11(1): 67-84.
- 김명화·정길순·노진아. (2012).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체 유아의 유아교육·보육기관 전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2(1): 1-24.
- 김세민·유강수. (2015). 로봇 활용 STEAM 수업이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8): 1-8.
- 김수진. (2015). 다문화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 현황 조사 연구. 「언어치료연구」, 24(3): 89-102.
- 김안나·권민균. (2010).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기 자녀의 언어능력과 가정환경 변인과

- 의 관계. 『아동교육』, 19(1): 163-178.
- 김유미. (2011) 균형적 접근법을 이용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문어 교육 방안. 『한국어정보학』, 13(2): 40-55.
- 김의수·김혜림. (201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구어 문장 비교 연구. 『우리어문연구』, 42: 31-62.
- 김정은·김영태·오소정. (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향상에 따른 어휘발달 변인 종단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9(1): 60-70.
- 김지숙.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과거표현 습득 양상에 관한 연구 -4~8세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43: 101-130.
- 나은주·나은영. (2015). 교육연극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 『인문사회 21』, 6(4): 1149-1166.
- 류선숙. (2015). 다문화 아동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문어 교육 내용 분석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1: 55-97.
- 박나리. (2013). 한국어교육자료로서의 다문화 걸음마기(toddler) 유아용그림책 텍스트의 개발방향에 대한 제안적 연구-일반 유아용그림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연구』, 25: 211-248.
- 박미단·성순옥·김영희. (2013).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특성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83-103.
- 박세희·황보명.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에 관한 문헌연구. 『언어치료연구』, 24(2): 57-70.
- 박순길·조증열·박선희. (2014). 취학전 다문화가정, 농촌, 도시 아동의 문식성 및 인지 언어적 발달 비교. 『언어치료연구』, 23(4): 33-46.
- 박영옥·이진경. (2018). 다문화 배경 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방법 모색 - “언어자각(Language Awarenes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3: 153-175.
- 박현선·이채원·김민정. (2014).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한국아동복지학』, 48: 261-288
- 박혜성. (2013). 다문화가정 및 이중언어 사용 아동 관련 연구분석. 『발달장애연구』, 17(1): 1-28.
- 박화윤·조진희. (2012).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휘력, 언어 이해력 및 표현력에 영향 미치는

- 사회 인구학적 변인. 「유아교육연구」, 32(5): 121-144.
- 방소영·황혜정. (2011). 위스타트(We Start)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수용, 표현 언어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7): 51-66.
- 배소영·김미배. (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연구」, 15(2): 146-156.
- 배희숙. (2015).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쓰기 발달 특성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8(4): 161-179.
- 선애순·권순황. (2010). 그림동화책 읽어주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255-272.
- 성미영·김정현·박석준·정현심·권윤정.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가정문해환경. 「아동교육」, 19(4): 33-47.
- 성미영·정현심·이서경. (2018). 영유아 안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 및 내용 분석: 2010년~2017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6): 504-517.
- 송채수. (2018). 이중언어사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문화연구」, 48: 245-280
- 심고우니·정경희. (2012). 초등학교 1-2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21(2): 93-110.
- 안미영.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교육 방안 -전통놀이를 활용한 교육연극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화」, 47: 123-145.
- 안원석.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령. (2008).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및 또래애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송희·박성지. (2016). 학령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읽기능력 비교 - 기초학력검사(KISE-BAAT) 읽기검사 하위 항목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2(1): 161-175.
- 양진희. (2012). 카메라 프로젝트 언어활동이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어휘능력과 언어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287-309.
- 엄진명·이필상. (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식성 발달에 관한 국내 연구 문헌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9(2): 81-108.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족진흥원 (2016). 201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오성배. (2005). 코시안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33-56.
- 오성숙. (2010). 「다문화가정 환경변인과 유아 언어능력의 관계」.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 오성숙.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522-531.
- 오소정. (2015).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평가 및 언어치료 교육의 의미와 실제: 언어치료 전공 전문가 심층면담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5(4): 583-600.
- 오소정·김영태. (2014). 학령기 다문화가정 언어장애 아동의 어휘지식 및 구어처리 과제 수행 특성. 『언어치료연구』, 23(1): 55-88.
- 오연주 (2018).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문화교류연구』, 7(3): 79-99.
- 오지훈·김현수. (2017). 다문화가정 이주민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언어 및 사회 능력과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5(4): 687-708.
- 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한국아동학회』, 30(3): 23-26.
- 유재연. (2013). 학령전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읽기능력 특성. 『언어치료연구』, 22(3): 133-146.
- 유향선·봉진영·윤재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언어 지도 경험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5(2): 109-133.
- 유희재·최윤영·카제노바 아셀·강승혜. (2016).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말하기, 듣기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 223-254.
- 이경미·정규진·최애나. (201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3): 39-61.
- 이상희·고영림·이현래·정태인. (2010). 다문화가정 유아동 자녀의 언어구사에 관한 실태조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395-412.
- 이승숙·곽승주. (2013). 다문화가정 유아의 이중언어 경험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7(4): 349-378.
- 이승숙·권경숙. (2018).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어린이미디어 연구』, 17(1): 299-320.

- 이은경·김희수. (2011).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언어발달 양상.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4): 183-201.
- 이은경·오성숙. (2012). 어머니의 언어사용 환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양상. 「열린 유아교육연구」, 17(4): 177-205.
- 이정아·이지현. (2011). 교사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중국 출신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휘력,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4): 55-82.
- 이정화.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한글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463-491.
- 정경희·황상심·배소영·김미배. (201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촉진교육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24(4): 361-378.
- 정민자·윤선아. (2014). 다문화가정 모의 특성과 가정환경변인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4: 259-282.
- 정예리·이숙희. (2010). 거주 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및 사회적 힘의 비교: 도시와 농촌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3: 79-108.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0.
- 정은희·김태강·박윤.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과 진단·평가에 대한 문헌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13-141.
- 정희영·방승미·유희진. (2010). 유아 인성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32(5): 277-296.
- 채영란·지성애. (2010). 동화를 활용한 토의, 미술 활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4(3): 317-336.
- 채혜경. (2008).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문해능력과 가정문해환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숙. (2016). 「다문화가정 유아의 쓰기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최진숙·고은. (2017). 다문화가정 유아의 쓰기 특성에 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26(3): 49-64.
- 최진숙·김효정·장현진. (2016). 「다문화가정 유아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철자오류의 특성」.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통계청. (2018). 「2018년 청소년 통계」.
- 황보영. (2016) 그림동화 독서지도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교육 지도 방법 -앤서니 브라운의 『터널』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4: 213-233.
- 황상심. (2009). 다문화가정아동의 5세 전 후 집단 간 언어발달특성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265-281.
- 황상심·강복정. (2016). 다문화아동의 이중언어사용추이 연구. 「언어치료연구」, 25(1): 123-134.
- 황혜신·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 행정안전부. (2017).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Best., J. W. & Kahn, J. V. (2006). Research in education(10th ed). Allyn & Bacon.
- Heimerl, F., Lohmann, S., Lange, S., & Ertl, T. (2014, January). Word cloud explorer: Text analytics based on word clouds. In 2014 47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pp. 1833-1842). IEEE.
- Hoff, E., Rumiiche, R., Burridge, A., Ribot, K. M., & Welsh, S. N. (2014). Expressive vocabulary development in children from bilingual and monolingual homes: A longitudinal study from two to four yea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9(4): 433-444.
- Magnuson, K., Lahaie, C., & Waldfogel, J. (2006). Preschool and school readiness of children of immigr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7(5): 1241-1262.
- Tamis-LeMonda, C. S., Song, L., Luo, R., Kuchirko, Y., Kahana-Kalman, R., Yoshikawa, H., & Raufman, J. (2014). Children's vocabulary growth in English and Spanish across early development and associations with school readiness skills.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39(2): 69-87.

Abstract

Analysis of Trends and Contents of Multicultural Early Childhood Language-related Research

Young Eun Chang, Mi Young Sung, Moon Soo Chang, Sung Suk Kim & Ah Reum Lim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known to have difficulty in language development such as lower level of phonological awareness an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ies ability because their language development in early years is influenced by non-Korean parents. Therefore, more research interest on language development and education is required to improve the Korean ability of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interest in languag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academia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e systematic accumulation of research results. We conducted a word cloud analysis focusing on research types, topics, and research methods based on 113 paper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from 2010 to 2018. As a result, first, the number of studies in the period showed an increase and decrease over time but an slight overall decrease. Second, most of the researches were conducted on infan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re is a lack of language development studies for toddlers who are experiencing rapid developmental periods. Third, research on multicultural preschoolers was mainly focused on quantitative research, and further research on qualitative research is needed for further research on multicultural preschool language development.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ademic research trends, it was confirmed that policy research related to languag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lagged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cy research focusing on language education and programs for young children.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helped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literatures in language development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vided the future direction in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for the children.

* Key Words: Multicultural Toddler Language, Multicultural Child Language, Multicultural Research Trends

투고일: 2019.10.12 / 심사일: 2019.11.27 / 게재확정일: 2019.12.23